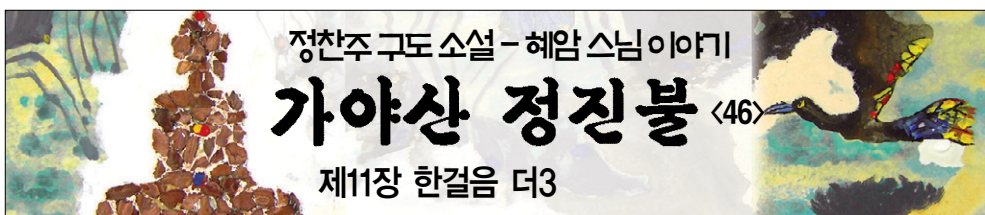


“혜암 수좌는 나같은 조실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혜암은 전강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늘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 통도사 극락암 선방에서 정진할 때 경봉에게 들은 전강의 일화가 가끔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경봉은 법문할 때마다 전강의 행장을 소개하곤 했던 것이다.

혜암은 경봉에게 전강을 통도사 보광선원의 조실로 초빙한 얘기도 여러 번 들은 바 있었다. 불도(佛道)의 세계에서는 세속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다. 도력이 비슷하면 세속의 나이를 초월해서 도우(道友)가 되었다. 경봉과 몇 살 아래인 전강의 관계도 도우지간이었다.

혜암은 전강의 행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더불어 전강의 법문을 직접 들은 것처럼 절절하게 음미하곤 했다.

黃鶯上樹一枝花요
白鷺下田千點雪이로다.

주장자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인 도리는 ‘노란 피꼬리가 나무에 오르면 한 뿔기 꽃이요’ 법상을 친 도리는 ‘백조가 밭에 내리니 천 점의 눈이네라.’

또 주장자를 들었다가 법상을 치고 이르되 ‘사자는 사람을 무는데 한나라 개는 흠뻑이를 쫓는다.’ 했으니 그만하면 알 것이지 거기에도 또 무엇을 첨부해 말한 것인가.

그러나 알수록 그 허물이 많고, 우리 증생의 일을 알기가 모르는 것보다 더 허물이 많아 법문을 듣고 알음알이를 내는 학자(學者)에게는 방(棒)을 내릴 것이나, 아무리 알아 보았자 분별식으로 아는 것은 번뇌 망상만 더하고, 차라리 모르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알음알이가 없느니라.

우리 증생들은 분별망상 때문에 생사고(生死苦)를 받느니라. 그러니 아는 것이 모두 망상이고 업(業)인데, 이런 소견으로 법문을 들어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한 방망이요, 아는 것은 두 방망이라 하느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도리인고.

언(言)에 도인은 마음을 취하고, 범부는 경계를 취하느니라. 또 사자는 짐승 중의 왕이니 흠뻑이를 던지면 사람을 물고 개는 흠뻑이를 쫓는다. 도인은

를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라는 말씀입니까.” 하니 용성스님은 “옳다. 옳다.” 하시었다.

불법이란 이렇게 한 번 방망이를 엮고 들어가서 뒤집고 살아가는 도리이니라. 근세 한국불교에 있어서 선의 중흥조이신 경허 대선사의 오도송(悟道頌)을 한번 말하여 보겠다.

忽聞人語無鼻孔하고
頓覺三千是我家로다
六月燕巖山下路에
野人無事太平歌로다.

홀연히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유월의 연암산 아랫길에
들사람이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한번 방(棒)을 쓰고 들어가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후, 일곱 걸음을 걸으신 뒤 사방을 돌아보시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하셨는데 그 후 운문선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당시에 만약 보았더라면 한 방망이로 타살하여 개에게 주어 천하를 태평케 했으리라.” 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운문끼구자(雲門喫狗子)’라고 하는 선문중(禪門中)의 ‘좌사현정(斥邪顯正)’ 공안이다.

나도 경허 큰스님의 오도송에 대하여 일방(一棒)을 쓰고 한마디 하겠느니라. 우리 선가(禪家)에는 참선해서 견성하는 법을 소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 있는데, 만약 종이 시주의 은혜만 지고 도를 뒤야 해탈하지 못하면 필경 죽어서 소밖에 될 것이 없다는 말을 어떤 처사가 듣고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만 되어라.”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경허 큰스님은 언하에 대오하였다.

유마경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문수보살은 말로써 이를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유마거사는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써 이르니 유마거사야말로 불이법문을 가



그림 · 최문정

라고 일었다.

그랬더니 만공스님이 있다가 “아,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가. 여여로 상사뒤여가 노래가 아닌가, 노래 부르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시었다. 그래서 나는 “스님이 제정하시면 다시 한 번 이르지요.” 하고는 보기 좋게 춤을 추면서 곡조를 부쳐서 다시 “여여 여여로 상사뒤여.” 하니 “좌사 가운데 농승(農聲)이 낱씨.”라고 만공스님이 점검하였다.

마침내 혜암은 인천 옹화사에 이르렀다. 그 무렵 전강은 옹화사 법보선원 조실로서 찾아온 선객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암은 곧장 조실제로 올라가 인사를 드렸다. 전강은 혜암을 전라도 곡성의 구수한 사투리로 반갑게 맞았다.

“일름 오시게.”
“스님 회상에서 정진하러 왔습니다.”
“잘 왔당께. 자네가 선덕(禪德)을 맡아줄랑가.”
전강은 한 번도 같이 정진해 본 적이 없는 혜암에게 선덕 소임을 맡겼다. 그만큼 혜암의 선기(禪機)가 빼어남을 이미 알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혜암은 하안거 동안 전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혜암의 정진은 한결같았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좌식(一坐食)에다 놓지 않는 장좌불와의 두타행(頭陀行)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다. 대중공양이 들어와 모든 대중이 별미를 즐기는 날에도 혜암은 어울리지 않고 동떨어졌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밤중에도 좌선을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었다.

옹화사 선원의 대중이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도 혜암의 한결같은 정진에 재발심을 하고 신심을 냈다. 반살림이 지나면서부터 느슨해졌던 선방 분위기가 사뭇 팽팽해졌다. 어느 새 좌선 중에 졸던 사람도 저절로 없어지고 요령을 피우려던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대중의 눈빛이 가을 눈발처럼 맑아지고 허리가 작대기처럼 꼳뚜해졌다.

전강은 혜암이 선방의 증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믿고 고마워했다. 전강이 대중에게 즐겨 주는 화두는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의 물음에 조주선사가 ‘앞니에 곱팡이가 생겼느니라(飯齒生毛).’고 답한 것이었다.

혜암은 전강과 선문답을 자유자재로 했다. 서로가 어떤 때는 활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짐목과 미소로 마음을 전했다. 전강은 법문 중에 대중들에게 말했다.

“혜암 수좌는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자 전강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암은 나같은 조실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이야.”

대중들이 몹시 놀랐지만 전강은 그런 반응에 개의치 않고 혜암을 수시로 조실제로 불러 차를 마시며 격려했다.

“혜암 수좌, 불련한 점은 없는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락이 있습니

다.”

“무엇인디.”
“대중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시시오.”
“조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겨.”
“지나친 칭찬이십니다.”
혜암은 마음속으로 전강의 칭찬을 부담스러워했다. 대중 가운데 일부가 혜암을 가리켜 전강 못지않은 도인이라고 수군댔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혜암이었으

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다.
혜암은 산중암자를 떠난 자신을 자책했다. 지리산 상무주암과 문수암에서 그랬듯 다시 자신을 누에고 치처럼 가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혜암은 하안거 해제 전날에 전강 회상을 떠나기로 했다. 그리하여 해안사 퇴설당에서 적명(寂明), 현우(玄宇), 일타(日陀) 등과 3년 결사로 자신을 담금질하기로 했다. 자신을 가두는 보임(保任)이 광대무변한 법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계속>

혜암의 선기가 빼어남 알고 전강은 선덕 소임 맡겨

한결같은 정진에 느슨하던 선방은 사뭇 팽팽

해인사 퇴설당에서 3년 결사로 담금질 다짐

마음을 취한다고 하니 어떤 것이 마음인가, 마음을 쫓아 들어가도 마음이 아니며, 부처도 아니며, 모든 색상이 끊어진 자리인데 어떤 것을 마음이라 할 것인가.

도인이나 사자도 색견과 상견(色見相見)에 떨어지지 거늘, 허물며 경계를 취하고 흠뻑이를 쫓나니 그 얼마나 어긋난 일인가. 우리 불법의 해탈도리(解脫道理)는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지 못하며, 천성(千聖)도 알지 못하였고, 쇠기도 오히려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생사 없는 근본당처(根本當處)에 들어가서는 무일물(無一物)이니 유일물(有一物)이니 하여도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일러야 하겠는가. 이 생사 해탈법이 언하에 있는 것인데, 언하를 여의고는 참으로 얻기 어려우니 언하에 대오(大悟)해야 하느니라. 즉, 법문을 듣다가 깨닫다는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서울 선학원에서 만공스님과 용성스님 두 선지식이 서로 법문을 하신게 되었다.

용성스님이 만공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묵동정(語默動靜)을 여의고 이르시오.” 하시니 만공스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계셨다.

그러자 용성스님은 만공스님에게 “양구(良久: 침묵)를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 만공스님의 대답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이 법거랑의 내용을 들은 나는 용성스님을 뵈고 “두 큰스님께서 서로 묵살을 주고 흠뻑이 들어간 격입니다.” 하니 용성스님께서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물어서, 내가 “스님께서 한번 물어 주십시오.” 하였더니 용성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라.” 하셨다. 내가 대답하기

장 잘 섰했다고 찬탄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도는 승속에 관계없는 것이니라.

경허 큰스님은 단 한마디 ‘소 콧구멍 없다’는 언하에 대오하였느니라. 견성하여 생사해탈법을 얻어 삼천세계가 그대로 나의 집인 줄 깨달았으니 무슨 일이 있으오.

“유월의 연암산 아랫길에 야인이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참으로 훌륭하고 거룩한 오도송이라고 여러 큰스님들이 모여서 찬탄하시기에 나는 경허 큰스님의 제자 보월스님 앞에서 직접 말하였다.

“무비공(無鼻孔)에는 없다(無는 허물이 있고, 돈카시아가(頓覺是我家)에는 깨달았다는 각견(覺見)의 허물이 있으니, 이런 것이 불어서 생사묘법(生死妙法)을 못 보고 또 제구 백정식(白淨識)을 못 건너가게 딱가모라고 있어서 그곳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니 학자를 바로 지시하여야 하겠습니.”라고 하니 보월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참 공연히 말을 제멋대로 하네.” 하였다.

그때 만공스님께서 “그러면 자네가 한번 일러보소.” 하였다. “예, 참, 저보고 일러 보라고 하시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천하에 없는 해탈 보배를 바로 주신들 그 위에 더 반갑겠습니까. 큰스님께서 한번 칭하여 주십시오.” 하니 만공스님께서 물으시기를 “그러면 경허 큰스님의 ‘무비공 도리’나, ‘각견 도리’나 ‘무사태평가 도리’를 어디 한번 제쳐 버리고 일러보소.” 하시었다.

내가 말하기를 “‘유월연암산하로’까지는 경허 큰스님이 송하신대로 두고, 제가 외람되지만 큰스님 송의 끝구절 ‘야인무사태평가 도리’만 이르겠습니다.” 하고서 농부가 부르듯이 “여여 여여로 상사뒤여.”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중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 으로서 생사가 돌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거 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